

라면에 과자까지...물가, 안 오르는게 없다

삼양·팔도·농심 등 라면 줄줄이 인상...제과업계도 평균 10% 가격 ↑ 우유 가격 인상도 '초읽기'...원유 1당 947원으로 21원 상승 결정

“장보러 가기가 무서워요. 채소부터 가공식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네요.”

16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40대 주부 노씨는 식품 진열대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 계란과 채소 가격부터 식료품까지 가격이 뛰면서 예년보다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서다.

노씨는 “다음달부터 라면에서 과자까지 모든 제품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며 “당장 먹을 거리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다는 점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고 말했다.

식품업계와 제과업계 등이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서는 등 ‘먹거리 가격 인상 러시’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장비구니 물가가 크게 들쭉고 있다. 각종 채소류와 계란을 비롯해 고등어와 오징어 등 대중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른 데다, 다음달부터 라면과 과자값이 오르는 등 전반적인 식탁물가 인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커피와 빵, 식품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우유 가격 인상도 ‘초읽기’에 놓여 가계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다음달 1일부터 삼양라면과 불닭볶음면 등 13개 라면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6.9% 인상한다.

삼양라면은 810원에서 860원으로, 불닭볶음면

은 1050원에서 1150원으로 오른다. 짜짜로니, 맛있는라면 등은 50원, 까르보불닭볶음면 등은 100원씩 오른다.

팔도도 다음달 1일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7.8% 인상한다. 비빔면이 10.9%, 왕뚜껍 8.6%, 도시락 6.1%, 일품 해물라면 6.3% 등이 오를 예정이다.

앞서 오뚜기는 이달부터 대표 제품인 진라면은 12.6%, 스낵면 11.6%, 육개장(용기면) 8.7% 인상하는 등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올렸다.

농심도 지난 16일부터 주력 제품인 신라면의 가격을 7.6% 올린 데 이어 안성탕면 6.1%, 육개장사발면 4.4% 등 라면 전 제품 가격을 평균 6.8% 올린 상황이다.

라면 인상은 오뚜기는 13년 4개월으로, 농심과 삼양식품은 각각 4년8개월, 4년4개월 만이다.

제과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롯데제과는 1년 만에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카스타드’ 6개틀이는 30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하고, 대용량 제품의 경우 가격은 그대로지만 개수를 12개에서 10개로 줄이는 등 다음달 1일부터 과자 등 11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12.2% 인상한다.

앞서 롯데제과는 지난 1일부터 휴런볼, 맛동산, 버터링 등 대표 제품 가격을 평균 10.8% 인상한 바 있다. 또 CJ제일제당도 지난달 ‘스팸 클래식’ 등 육가공 제품 20여종의 가격을 평균 9.5% 인상하기도 했다.

이들 업계는 이들은 지속되는 인건비와 물류비 등 제반비용 상승과 밀가루 등 원재료 값 상승 압박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당장 17일부터 원유 가격 인상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우윳값 인상으로 제과류와 빵,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커피 등 식품·외식업계가 가격

인상 압박을 받게 됐다.

낙농진흥회는 지난해 7월 원유 가격을 1당 947원으로 21원 올리기로 결정한 것에 따라 국내 유기업들은 17일부터 오른 가격으로 원유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원유 가격 인상으로 조만간 유기업들이 우유와 유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원유가격이 1 / 당 4원 올랐을 때 유제품 가격 역시 4% 상당 인상됐다는 점에서 유제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올해 인상 폭이 2018년에 비해 5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우유 가격이 더 오르면 커피와 빵 등 주요 식품업체가 잇달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전방위적인 식탁물가 상승으로 가계경제 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불타는 청춘 베테랑 카드' 인기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가운데)은 최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불타는 청춘 베테랑 카드' 출시 기념 경품 증정식을 열고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총 23명을 추첨해 반백나루 반신욕기, 녹증기 등을 증정했다. 병원·약국·주유 등 중장년층 소비 혜택을 넓힌 이 상품 가입자는 석 달 만에 3500명을 넘겼다. <광주은행 제공>

한전, 2분기 7648억 영업손실

1년 6개월 만에 적자 전환

한국전력이 올 2분기 7000억원 넘는 영업손실을 내며 6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다음 달 결정되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전은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영업손실이 76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3898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최근 공시했다. 2019년 4분기 이후 6개 분기 만의 적자 전환이다.

2분기 매출은 13조51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순손실은 6739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영업손실은 19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상반기에는 8204억원의 흑자를 냈다.

실적이 악화한 것은 고유가로 연료비와 전력구

입비가 늘었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진 탓이다.

상반기 매출은 28조59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고, 전력판매량은 제조업의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

그러나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판매단가가 하락해 전기판매수익은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지만 국민의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2분기와 3분기 요금을 동결했다. 4분기 전기요금은 6~8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한전은 “향후 연료가격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강도 경영효율화를 통해 단위당 전력급급 비용을 매년 3% 이내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희준 기자 bhj@

광주·전남 7월 수출 54억 달러...코로나 이후 최대 실적 기록

광주·전남지역의 지난달 수출이 코로나19 충격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6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2.4% 증가한 53억 8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최근 1년 새 수출액이 가장 적었던 지난해 11월(35억2000만 달러)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수출 상승세도 꾸준히 이어져 지난 4월 소폭 준 것을 제외하면 8개월째 수출액 증가 추세를 기록

하고 있다.

올 7월 말까지 누적수출액은 324억7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3.2% 늘었고, 무역수지는 87억 71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6.2%와 18.6% 증가한 14억100만달러와 6억75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7억 2600만달러 흑자였다.

광주지역은 주로 반도체와 가전제품, 전남은 화공품과 석유제품이 수출 효자품목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61.8% 증가한 39억8600만달러, 수입은 83.5% 증가한 33억8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억7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광주는 반도체(30.4%), 가전제품(43.2%), 기계류(13.1%), 타이어(29.1%)가 수출을 견인했으며, 전남은 화공품(53.7%), 석유제품(71.9%), 철강제품(161.8%), 기계류(141.9%) 등이 증가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명품족들 모여라...롯데탑스 데이 열린다

22일까지 최대 40% 할인행사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해외명품 매장 '롯데탑스'가 오는 22일까지 최대 40% 할인 판매하는 '롯데탑스 데이' 행사를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해당 매장은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과 광주월드컵점, 남양점, 롯데몰 여수점 등에 있다.

전국 롯데탑스 매장 40여 곳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70여 개 브랜드 인기 상품을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롯데탑스 데이'는 2월과 8월 일 년에 두 번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기존 할인 가격에 10-

30%를 추가 할인해준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코로나19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해 1~7월 해외 명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증가했다.

이는 해외 여행길이 막힌 소비자들 사이에서 통 큰 구매를 하는 이른바 '보복소비' 심리가 작용했다고 롯데 측은 설명했다.

할인 상품 브랜드는 페라가모, 발렌티노, 지방시, 톰브라운, 골든구스 등으로 지갑과 가방, 의류 등을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롯데탑스에 입점한 해외 생활 브랜드 모든 품목은 1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